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신재민	소속(학부/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파견 학기	1학기(2019.04.01.) ~2학기(2020.02.10.)		파견 국가	일본
파견 대학	가나자와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어려서부터 오래간 연구실 활동을 하며, 나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 활동해왔습니다. 원래 관심이 있었던 교환학생의 목록을 보던 중 가나자와 대학교는 연구실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외국에서의 연구실 경험이 적지 않게 느껴졌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잠시 공부 해봤던 일본어 진도는 빠르게 나아갔고, 마침내 교환학생에 합격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전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가나자와대학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일어공부는 물론 영어공부도 가능하고, 연구실활동이 가능한 반면, 동아리 활동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병행하기는 쉽지않으니 뚜렷한 목표를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준비는 보통 가나자와대학 또는 금오공대에서 잘 이야기해주시니 이메일 확인만 잘하면 특별히 따로 준비 할 것은 없습니다.

비자는 대구에는 없고, 부산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들러야 하나, 대리수령이 가능하고, 2일정도 걸립니다.

수강신청은 교수님 일반 학생들과 같이 제한사항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개설과목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매우 큰 캠퍼스를 자랑하는 가나자와 대학교입니다 좌측 상단이 Aeon으로 식료품점입니다. 맞은편에 morinosato[기숙사]가 있습니다.

우측아래 사키가케[기숙사]와는 걸어서 40분 거리지만, 유료 버스가 운행합니다.

postoffice까지는 20분정도 걸리는데, 수업도 여기 근처, kaikan[기숙사]도 여기 근처입니다.

기후는 산위라 아마존과 같고, 비가 많이 옵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저는 장화를 추천합니다.

산 아래에는 맛집이 있지만, 교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내에 나가도 맛집이 많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일본어 필수 수강학점이 있지만, 한 학기만에 채우는 것이 가능하고, 연구실에서는 2학점을 3개 총 6학점을 주며, 금오공대 환산 시 9학점을 받게됩니다.

그 외에는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는 비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가나자와 대학교에는 4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sakigake 8인이 한 집에서 각방을 쓰며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 (가장 저렴)

hukumei 사키가케와 같이 있지만 더 비싸고, 더 쾌적함

kaikan 거실이 포함된 방을 각각 배정받음(사키가케보다 비쌘)

morinosato 각 방을 배정받으며, 가장쾌적한 방을 얻을 수 있음(가장 비쌘)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저는 가나자와 개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일본의 연구실은 교수님따라 학생을 맡어 주는 교수님, 학생에 신경쓰지 않는 교수님 등 한국과 같이 여러 교수님이 계십니다. 꼭 연구 실적을 내고자 한다면 교수님과 첫 대면 때 열심히 어필 하시길 바랍니다.

사키가케에서는 한국인도 외국인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영어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맛집이 많아 맛집투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교내에서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니 메일 확인을 습관화 합시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일본은 매우 동아리에 적극적입니다. 저는 미술부 동아리였는데 못그려도 들어가도되었습니다만, 들어온 일본인은 대부분 수준급이었습니다.

양궁동아리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고합니다.

보통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어디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문화적 차이는 일본인은 먼저 다가오는 편이 아니라서, 먼저 다가가는 편이 친구만들기 편합니다.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 가장 편합니다.

나이는 신경쓰지마시고 활동하는 것이 편합니다. 외국인도 많아 한국의 유교문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고, 나랑 맞는 문화를 가진 친구들도 많았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좀더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어는 교환학생을 갔을 때 곱하기로 습니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준비한게 없으면 곱해도 영입입니다.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만들어 나간만큼 돌아오는 것이 많고, 경험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남는것도 없습니다.

공부든 인간관계든 적극적인 친구가 더 많은 체험을 하는경향이 있습니다. 혹 교환학생을 가면 용감해 집시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선배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